

#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과 한국 ODA의 전략적 이행방안

임 소 진 (KOICA ODA연구실 상임연구원)

## 목 차

1. 서론
2.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이해
3. 공여국의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방안 및 전략분석
  - 3.1. 스웨덴
  - 3.2. 영국
  - 3.3. 호주
4. 한국의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시사점

## 1. 서론

2011년 국제사회는 2005년 파리선언 및 2008년 아크라행동강령의 이행정도를 평가하고 원조를 넘어선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국제 개발협력 대표들은 세 차례에 걸친 Post-Busan 임시그룹(Post-Busan Interim Group) 회의에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이후, 부산파트너십) 지표를 개발하였고, 그 결과를 2012년 6월 OECD DAC 원조효과작업반 회의에서 합의하였다. 그러나 부산파트너십 지표의 일부는 명확한 정의 및 이행 측정방법이 확정되지 않고, Post-Busan 체제 운영을 담당한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2012년 12월까지 개발하도록 합의되었다.

그러나 부산파트너십의 공여국에 해당하는 지표의 대부분은 파리선언의 지표 이행방법을 적용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각 공여국은 부산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개발하여야 할 시점이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진공여국의 파리선언 행동방안(action plan) 또는 이행 전략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 ODA의 부산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전략적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선 다음 장에서 금년 6월에 합의된 부산파트너십의 이행체제와 지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제3장에서 영국과 스웨덴, 그리고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부산파트너십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타 공여국의 파리선언 행동방안 및 이행전략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제4장에서 향후 한국 ODA의 부산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전략적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연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 2.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이해

2012년 상반기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PBIG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부산파트너십 지표의 개발과 함께 향후 글로벌 파트너십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국제사회는 특히 OECD와 UNDP가 공동으로 집행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고, 총 18명의 위원회 대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 중 공동의장은 장관급으로, 그 외 집행위원회 구성원은 해당국가의 고위급 인사로 구성하도록 논의하였다 (OECD, 2012a & 2012c). 그러나 원조효과작업반 회의에서 합의된 글로벌 파트너십 집행위원회 역시 부산파트너십 지표와 마찬가지로 모든 구성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는 2012년 7월까지 합의하도록 하였다. 현재까지 확정된 부산파트너십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은 표1과 같다.

〈표 1〉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집행위원회 (2012년 7월초 기준)

공동의장	
1인	개발협력 수원국 • 미정
1인	개발협력 수원국 겸 공여국 (신흥공여국) • 미정
1인	개발협력 공여국 • Andrew Mitchell, 영국 국제개발부장관

집행위원회 구성원	
5인	개발협력 수원국 대표, 이 중 1인은 g7+ 대표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7+ 대표 동티모르</li> <li>• 그 외 4인 미정</li> </ul>
1인	개발협력 수원국 겸 공여국 (신흥공여국)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정</li> </ul>
3인	개발협력 공여국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ustavo Martin Prada, EU 대표</li> <li>• Donald Steinberg, USAID 대표</li> <li>• 박은하, 한국외교부 개발협력국장</li> </ul>
1인	민간부문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정 (BIAC 중심)<sup>1)</sup></li> </ul>
1인	의회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rtin Chungong, IPU 국장<sup>2)</sup></li> </ul>
1인	시민사회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etter Aid 공동의장 2명 (Antonio Tujan, Myara CoCo) 중 1인 예정, 이후 개발효과성을 위한 시민사회 파트너십(CSO Partnership for Development Effectiveness, CPDE) 정식 출범시 정해질 새로운 대표로 대체 예정 (10월)</li> </ul>
1인	다자개발은행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phie Sirtaine, 세계은행 국장</li> </ul>
1인	UNDP/UNDG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igrid Kaag, UNDP 사무차장보</li> </ul>
1인	OECD/DAC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rian Atwood, OECD DAC 의장</li> </ul>

출처 : 저자재구성 / 참고문헌 : OECD, 2012d

위와 같은 집행위원회는 OECD DAC의 원조효과작업반의 현재까지의 업무를 물려받아, 향후 부산파트너십 지표의 후속 개발과 이행현황 모니터링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번 원조효과작업반에서 합의된 부산파트너십의 10개 지표를 표2와 같이 정리하였다.

1) BIAC : Business Industry and Advisory Committee,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

2) IPU : 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의원연맹

〈표 2〉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지표

지표 1. 개도국 우선사항을 충족하는 결과중심의 협력		
지표정의	<div>■ 개도국 결과프레임워크 : 결과시스템과 관련 모니터링 및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 M&amp;E) 시스템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법</div> <div>• 성과(performance)와 개발결과 달성여부(achievement)에 초점</div> <div>• 합의된 목표와 산출물 지표 및 성과지표, 그리고 그 지표들의 이행 향상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점과 목표치 설정이 포함되어야 함.</div> <div>• 국가개발전략, 분야계획, 그리고 예산지원 성과(performance) 매트릭스와 같은 기타 프레임워크에 명시되어야 함.</div> <div>• 위의 프레임워크들은 국가 단독 개발이 아닌 이해관계자들과의 포괄적 대화 및 참여적 과정에 의해 개발되어야 함.</div>	
평가방법	■ 개도국 결과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공여국 비율 - 개발중	
측정방법	분자	개도국 결과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공여국의 수
	분모	전체 공여국의 수
지표 2. 개발활동의 참여와 기여를 최대화하는 환경에서의 시민사회 운영		
지표정의	■ 개발 중	
평가방법	■ CIVICUS가 개발한 가능한 환경 지표(Enabling Environment Index)를 중심으로 평가방법 개발 중	
측정방법	■ 개발 중	
지표 3. 개발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와 기대		
지표정의	■ 수원국에서의 민간기업과 정부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개발 중	
평가방법	■ 개발 중	
측정방법	■ 개발 중	
지표 4. 투명성 : 개발협력에 관한 정보 공개		
지표정의	■ 공통표준(common standard)과 함께 개발 중	
평가방법	<div>■ 평가방법 개발 중</div> <div>• 공여국의 공통표준 이행 서술을 통한 정성적 평가 고려</div>	
측정방법	■ 공통표준 이행여부 서술 - 개발중	
지표 5a. 개발협력 예측성 (1년)		
지표정의	■ 파리선언 지표 7 정의 그대로 적용	
평가방법	■ 공여국 집행예정액 중 집행된 원조금액 비율	
측정방법	분자	공여국이 n년도에 집행한 보고된 원조금액
	분모	공여국이 n년도에 집행하고자 계획한 원조금액

지표 5b. 개발협력 예측성 (중기)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도국은 각각의 공여국에 대해 향후 3년간의 지출계획 가능여부 결정</li> <li>• 만약 가능한 경우 그 계획은 일정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li> <li>• 기준은 현지시험 과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li> </ul>
평가방법	■ 향후 지출계획 그리고/또는 향후 최소 3년간 이행계획에 따른 예상 원조금액
측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개도국 내 단일한 공여국 별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li> <li>• 측정치 <math>t</math>년도 = 평균치 (<math>a_{t+1}</math>, <math>a_{t+2}</math>, <math>a_{t+3}</math>)</li> <li>• <math>a_{t+n}</math>은 <math>t+n</math>년도를 다루고 있는 향후 지출계획의 <math>t</math>년도 말의 가능성에 따른 2진 수의 값을 나타냄. 만약 계획이 있는 경우에 1, 계획이 없는 경우에 0으로 계산됨.</li> <li>• 정부부문에 대한 원조에 적용</li> </ul>
지표 6. 의회의 정밀검토에 따른 정부의 원조 예산	
지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예산이란 개도국의 연간예산을 의미</li> <li>• 1년 단위는 개도국의 회계연도를 의미</li> </ul>
평가방법	■ 개도국 입법기관에 의해 승인된 연간예산에 기록된 집행예정 원조 비율
측정방법	분자 $n$ 년도 연간예산에 기록된 원조금액
	분모 공여국이 $n$ 년도에 집행하고자 계획한 원조금액
지표 7. 포괄적 검토에 의한 개발협력 주체간 상호책임성 강화	
지표정의	■ 파리선언 지표 12 정의 그대로 적용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된 공약 이행 향상정도를 포괄적이고 상호적으로 평가하는 개도국의 비율</li> <li>• 파리선언 지표 12 평가방법의 개선된 적용</li> </ul>
측정방법	분자 상호평가(mutual assessment) 보유 개도국 수
	분모 전체 개도국 수
지표 8. 양성평등과 여성지위향상	
지표정의	■ 개발 중
평가방법	■ 양성평등과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공공배분 트래킹시스템 보유 개도국 비율 - 개발 중
측정방법	분자 양성평등과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자원배분 트래킹시스템 보유 개도국 수
	분모 전체 개도국 수
지표 9a. 개도국 공공재정(PFM) 시스템의 질	
지표정의	■ 세계은행 국가정책 및 제도평가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이후 CPIA) 지표 13 정의 적용
평가방법	■ 파리선언 지표 2a 그대로 적용
측정방법	■ CPIA

지표 9b. 개도국 PFM 시스템 및 공공조달시스템 이용		
지표정의	■ 파리선언 지표 5a와 5b 정의 그대로 적용	
평가방법	■ 파리선언 지표 5a와 5b를 통합하여 적용 ■ 개도국 PFM 시스템과 공공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도국 정부부문에 대해 집행된 원조금액 비율	
측정방법	분자	개도국 시스템을 이용한 원조금액
	분모	개도국 정부부문에 대해 집행된 총 원조금액
지표 10. 원조비구속성		
지표정의	■ 파리선언 지표 8 정의 그대로 적용	
평가방법	■ 파리선언 지표 8 정의 그대로 적용	
측정방법	분자	비구속화 원조금액
	분모	총 원조금액

출처 : 저자작성 / 참고문헌 : OECD, 201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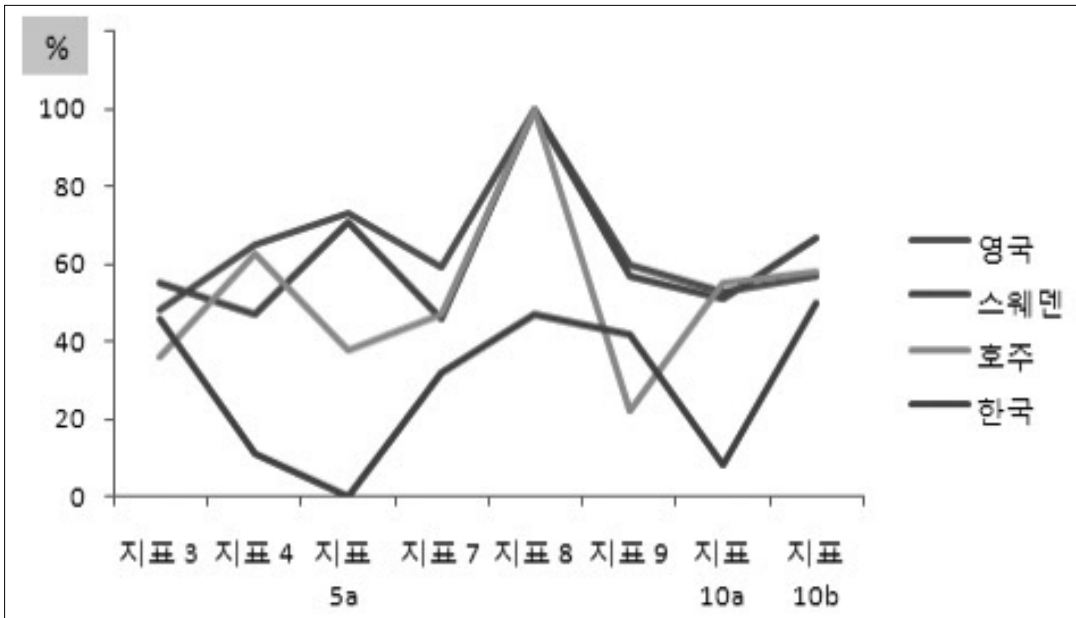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표 1, 4, 5a, 5b, 9b, 10은 공여국 중심의 지표이며, 이 중 지표 5a, 9b, 10은 파리선언 지표의 정의 및 모니터링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지표 1과 4는 아직 개발중에 있다. 그러나 부산파트너십 지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개도국 중심의 지표라 하더라도 공여국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산파트너십은 파리선언과는 다르게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모니터링을 하는 체제가 아니라, 1년 6개월마다 열리는 장관급 회의에서 이행성장에 대한 데이터가 준비된 국가별로 보고(rolling-based)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OECD, 2012a). 부산파트너십의 모니터링 체제는 수원국별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며, 글로벌 차원에서 수집가능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도록 개발되었다.

### 3. 공여국의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방안 및 전략분석

공여국의 파리선언 이행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공여국의 원조규모, 원조 담당인력의 규모 및 역량, 정부의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정치적 의지 및 공약, 전정부적 정책일관성, 그리고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방안(action plan) 및 전략 등이 있다 (Lim, 2011). 이 중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방안과 전략에 대해 살펴보면, 예를 들어, 스웨덴은 파리선언 이후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의 ‘원조효과성 향상을 위한 Sida 행동방안’을 수립하였고 (Sida, 2006 &

2009), 영국은 2010년까지 일관성있게 이용할 수 있는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DFID 행동방안’을 개발하였다(DFID, 2006). 반면, 호주는 파리선언을 위한 별도의 행동방안은 마련하지 않았으나, 대신 파리선언 이행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파리선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다(AusAID, 2010). 그러나 한국의 경우,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방안(action plan) 및 전략이 모두 미흡하였다.

〈도표 1〉 영국, 스웨덴, 호주, 한국의 파리선언 이행결과<sup>3)</sup>



출처 : 저자작성 / 참고문헌 : OECD, 2011

위의 도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별도의 행동방안이 마련되었던 영국과 스웨덴은 호주와 한국에 비해 좋은 이행결과를 보여주었으며, 행동방안은 수립하지 않았더라도 지속적인 이행과정의 평가를 통한 변화를 전략으로 세운 호주의 경우도 비교적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행동방안과 전략이 모두 부재하였던 한국의 경우 현저히 낮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부산파트너십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전략적 이행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웨덴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2006년과 2009년 행동방안과 영국의 파리선언 이행방안, 그리고 호주의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자 한다.

3) 파리선언 지표의 대부분은 비율(%)로 달성정도를 측정하고, 지표 6만이 예외적으로 평행적수행조직(PIU)의 개수를 측정하여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도표 1에서는 지표 6을 제외한 비율(%)로 평가되는 지표들만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 3.1. 스웨덴

#### ▣ 2006년 행동방안

스웨덴 정부의 원조효과성 제고 행동방안은 스웨덴의 파리선언에 대한 공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스웨덴 정부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행동방안은 파리선언 이행에 대한 Sida의 구체적 행동전략을 구성하고, Sida의 2005년 이전 주요 원조정책 문서에 제시된 행동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다시 말하면, 스웨덴의 2006년 행동방안은 2003년에 작성된 ‘원조조화 계획(harmonisation plan)’을 대체하고, 2005년 합의된 파리선언의 5대 원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 행동방안은 2006년을 시작으로 하여 2008년 아크라 고위급 회담 이전까지 해당하는 파리선언 이행 행동방안으로 설계되었다. 스웨덴은 이미 2006년 행동방안에서 취약국에 대한 차별적 지원전략을 세워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원조효과성 및 파리선언 이행 행동방안이 다음과 같은 주요 정부 원조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개발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책임의 공유’에 관한 정부안 (Government Bill)<sup>4)</sup>
- 2005년 4월 14일의 국무장관과 Sida 이사장의 공동합의문 (joint letter)
- 예산안 (Budget Bill)<sup>5)</sup>
- 협력전략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sup>6)</sup>

스웨덴은 위와 같은 정부문서 뿐 아니라 Sida 내 기본 정책문서와 OECD DAC, EU, 북유럽연합체(Nordic+)의 원조정책 문서를 참고하여 이행전략을 개발하였다. 즉, 스웨덴은 원조효과성 이행 행동방안을 통해서 스웨덴 정부가 OECD, EU, 북유럽연합체(Nordic+), UN 등의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다.

스웨덴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2006년 행동방안은 크게 ‘1) 파리선언 이행 모니터링, 2) 방법과 절차 개발, 3) 학습과 역량(competence) 개발, 4) 커뮤니케이션, 5) 질적 보장 (quality

4) Gov Bill 2002/03:122

5) 2005/06:1, Bilaga 7

6) UD2005/24624/GU



assurance), 6) 이행방안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각 방안에 대한 세부 행동절차가 소개되어 있으며, 세부방안별 역할을 구분하여 담당부서와 절차 완료시기도 제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행동방안에 따른 행동조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 파리선언 이행 모니터링

### 1. 지표에 대한 개도국별 보고

- 조언 및 조율 담당부서 : 정책부 (Department for Policy and Methodology, 이후 POM)
- 이행 담당부서 : 대사관<sup>7)</sup>
- POM에 보고하는 기한일 : 2006년 9월 30일까지

### 2. 2007년 운영계획의 우선사항 정립

- 프로그램 지원 이용과 집중되고 상호보완적이며 위임된 협력
- 지시사항(instruction) 담당부서 : 이사장실 (Director-General's Office, DG's Office), 조직개발·재정부 (Department for Finance and Corporate Development, 이후 EVU)
- 기한일 : 2006년 9월 6일까지 최종 지시사항 완성

### 3. Sida를 위한 지표, 목표치, 평가방법

- 담당부서 : POM
- 기한일 : 2006년 12월 31일까지 초안 완성

### 4. 대사관과 운영부서의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자문서비스

- 담당부서 : 각 지역 담당 모든 부서. 단, 조율은 POM 담당
- 기한일 : 2006년 10월 31일까지 조치사항(안) 상세히 기술

### 5. 다자기관에 의한 이행 평가

- 가이드라인 담당부서 : POM
- 보고 담당부서 : 대사관 및 지역부서
- POM에 보고하는 기한일 : 2006년 9월 30일

---

7) Sida는 독립된 현지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고, 대사관과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Lim, 2011).

## 나. 방법과 절차 개발

### 6. 파리선언 이행을 방해하는 절차 조정

- 조율 담당부서 : POM
- 이행부서 : EVU
- 기한일 :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약사항 보고 및 조치방안 마련

### 7. 프로그램형 접근법(Programme-based Approach, 이후 PBA)을 위한 방법론과 절차 개발 (계속 진행)

- 담당부서 : 다른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POM이 담당
- 기한일 : 2006년 12월 31일까지 정리보고서 마무리

### 8. 내부 결과중심의 관리(Management for Results) 프로젝트 (계속 진행)

- 담당부서 : 권한은 이사장실, 이행은 EVU
- 기한일 : 2006년 10월 착수보고, 2007년 6월 종료보고

## 다. 학습과 역량(competence) 개발

### 9. 역량개발을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 담당부서 : 인사부 (Department for Personnel and Organisation Development, PEO-LÄR) (POM과의 긴밀한 협조)
- 이행부서 : 모든 운영부서와 대사관
- 기한일 : 2006년 8월까지 세미나 계획 완료

### 10. 원조효과성 아젠다 관련 인력구성, 채용, 인센티브에 대한 원칙 검토

- 담당부서 : 인사부 (PEO HR & STAB (LÄR))
- 기한일 : 2006년 8월 31일까지 구체적 계획 초안 개발

## 라. 커뮤니케이션

### 11. 원조효과성 아젠다에 대한 내부 커뮤니케이션과 외부 커뮤니케이션 전략 개발 (계속 진행)

- 담당부서 : 정보부 (Department for Information, INFO)
- 사전연구 기한일 : 2006년 6월

12. 시민사회 대표와의 대화 및 커뮤니케이션 개발

- 담당부서 : 인적지원 · 분쟁방지 · NGO 협력부 (Department for Cooperation with NGO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nd Conflict Prevention, SEKA)
- 기한일 : 2006년 11월 30일까지 전략적 이슈에 대한 결론 제출

마. 질적보장 (Quality Assurance, QA)

13. 프로젝트위원회의 질적보장 논의에 원조효과성 아젠다 포함 (계속 진행)

- 담당부서 : POM, 지역별/분야별 부서, 대사관

14. 협력전략을 위한 동료평가위원회(Peer Review Committee for Cooperation Strategies)의 원조효과성 관련 이슈의 검토 및 모니터링 (계속 진행)

15. 대사관 내 질적보장 담당부서의 원조효과성 이슈 포함 (계속 진행)

- 담당부서 : 질적보장 담당부서(QA-unit)

바. 이행방안 모니터링

16. 스웨덴 개발협력의 원조효과성 향상정도 연간보고서에 포함

- 보고 담당부서 : POM
- 정보제공 담당부서 : 대사관, 지역부서, 그 외 행동방안 이행 관련부서
- 기한일 : 2006년 10월 31일

스웨덴 정부는 위와 같은 행동절차의 설계에 있어서 1) Sida의 모니터링 지표, 2) 이행을 위한 절차적 제약요소 감소, 3) 커뮤니케이션의 3가지를 우선 고려사항으로 정하였다. 그 외에 2006년 행동방안은 Sida의 업무환경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즉, MDGs 뿐 아니라 파리선언이 국제사회에 가져온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거하여 Sida의 업무환경은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행동방안은 특히 현지사무소에서의 변화과정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현지사무소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원조 지원 및 그 외 원조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개도국에서의 공여국간 공동지원전략(Joint Assistance Strategies, JAS)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행동방안을 통해 원조효과성 아젠다는 곧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현지사무소의 직원과 스톡홀

를 본부의 행정, 지역, 분야별 모든 부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스웨덴 민간기업, 컨설턴트, 정부제도 등의 요소에도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 2009년 행동방안

스웨덴의 2009년 행동방안은 스웨덴 외교부와 Sida가 함께 개발하였으며, 결과중심 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설계하여 행동방안의 이행여부를 해마다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의한 개선점을 도출하여 적용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행동방안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부 정책은 다음과 같다.

- 2009년 예산안 (Budget Bill)
- 2009년 예산책정안 (Letter of Appropriation)<sup>8)</sup>

2009년 행동방안이 다루고자 하는 시기는 2009년에서 2011년까지이다.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은 2012년에 부산파트너십 이행방안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스웨덴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2009년 행동방안은 2006년 행동방안과는 다른 형태로 구성되었다. 스웨덴의 2009년 행동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우선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개도국 시스템 이용 향상
- PBA를 이용한 원조금액 증가
- 원조예측성과 결과를 위한 책무성 향상
- 선택과 집중 향상
- 현지사무소와 지역사무소에서의 공동 분석업무 및 협동 증가
- 특히 EU를 중심으로 한 다른 공여국과의 글로벌 협력 향상
- 다자기관의 원조효과성 공약 달성을 위한 지원 향상

위와 같은 목표들은 파리선언 지표의 일부와 스웨덴만을 위한 지표를 통합하여 이행하여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이다. 스웨덴은 2006년 원조효과성 제고 행동방안 세부절차 3번에서 'Sida를 위한 지표, 목표치, 평가방법'을 별도로 개발하도록 한 바 있다.

스웨덴은 위의 7가지 목표를 각 공여국별 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파리선언 이행에

8) 스웨덴의 Letter of Appropriation은 Sida의 연간예산을 정하고 있으며, 원조의 국가별, 지역별, 분야별 비용을 분배하고 있다 (Lim, 2011).

기여하고자 하였다. 참고로 스웨덴의 양자원조는 다음과 같은 5개의 ‘협력국 카테고리(category of cooperation countries)’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 카테고리 1 : 장기간 개발협력을 제공하고 있는 개도국
- 카테고리 2 : 분쟁국과 분쟁 후 상황에 있는 개도국
- 카테고리 3 : 동유럽 개도국
- 카테고리 4 : 민주주의와 인권이 개선되어야 하는 개도국
- 카테고리 5 : 점차적으로 스웨덴 개발협력 대상국에서 제외되고 있는 개도국

스웨덴은 이 중 카테고리 1, 2, 3에 해당하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목표치와 모니터링 방법을 수립하여 파리선언 지표 및 스웨덴의 원조효과성 지표를 적용할 것을 행동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다. 카테고리 4에 해당하는 개도국의 경우, 2009년 행동방안의 원칙과 관련있고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원조효과성 지표를 도입하여 원조를 제공하고, 카테고리 5에 해당하는 개도국의 경우 행동방안에 입각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 3.2. 영국

영국의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방안은 영국 ‘원조백서’와 ‘종합지출검토보고서(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CSR)’<sup>9)</sup>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조효과성 공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의 5가지 중요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 강하고 적극적인 개도국의 리더십
- 개도국 국가계획 및 우선사항을 중심으로 한 지원
- 공동 사업운영 (공동예산지원 및 공동역량개발)
- 혁신적 접근법으로의 변화 (공동 프로그램, 공동전략, 사무소 공유, 직원공유)
- 더 나은 분야별 공여국 간 노동분업(division of labour) 합의

영국의 파리선언 이행방안은 정책부(Policy Division), 국제부(International Division Advisory Department), 그리고 각 지역부서(Regional Divisions)가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향후 고민해야 할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

9) 종합지출검토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임소진 (2012).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동향 및 한국 ODA의 기여방안.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14호. 한국국제협력단.’ 참고

- 원조의 선택적 배분(selectivity) : 원조고아 문제 각성<sup>10)</sup>
- 다자기관에 대한 전략적 원조배분
- 원조효과성에 대한 공여국 책무성 강화

영국의 행동방안은 1) 현지사무소 차원에서의 행동방안, 2) 국제적 행동방안, 3) 지역차원의 행동방안, 그리고 4) DFID 조직차원의 행동방안으로 구분하여 설계되었다. 이 중 현지사무소 차원의 행동방안을 제외한 내용은 각 방안과 관련된 담당부서를 별도로 지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현지사무소의 행동방안은 다음과 같다.

#### 가. 주인의식

##### 1. 개도국의 실질적 개발전략 소유

- 개도국 정부와 함께 예산 절차와 연결된 개도국이 소유한 개도국 주도의 개발전략 개발
- 국가전략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장기간 재정지원 제공

#### 나. 원조일치

##### 2. 신뢰할 수 있는 개도국 시스템

- 개도국의 재정관리 시스템과 조달시스템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되도록 개도국 정부 및 타 공여국과 함께 노력
- 시스템 강화 지원 (예 : 공공재정관리 성과측정프레임워크 이용 향상, 공공재정관리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 지원 등)

##### 3. 개도국의 국가우위와 일치된 원조의 흐름

- 개도국 정부에 대한 원조금액 100% 모두가 개도국 국가 예산에 보고될 수 있도록 보장

##### 4. 조율된(coordinated) 지원을 통한 개도국 역량강화

- 개도국 정부와 함께 개도국 국가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 타 공여국과 함께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 지원 (개도국 정부가 소유하고 개도국 정부가 주도한 프로그램 위주)

10) 원조제공시 수원국 선택 정책(selectivity)의 자세한 내용은 '임소진 (2012).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협력효과성으로. 국제개발협력 2012년 2호, 한국국제협력단.' 참고

## 5. 개도국 시스템 이용

- 개도국의 시스템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도국 공공재정관리시스템 또는/그리고 조달시스템 이용
- 조건이 맞는 경우에 한하여, 빈곤감소예산지원(poverty reduction budget support, 이후 PRBS)<sup>11)</sup>과 같은 융통성 있는 자금조달 방법 이용 향상

## 6. 평행적수행조직 중복회피를 통한 개도국 역량강화

- 평행적 프로젝트 수행조직을 통한 사업진행 금지 또는 평행적 프로젝트 수행조직 신설 금지

## 7. 원조예측성 제고

- 개도국 예산에 포함되는 원조의 집행계획에 대한 정보제공, 개도국 회계연도의 첫 6개월 간 PRBS로 집행, 집행계획 대비 실제 집행액(disbursement) 보고 및 차이에 대한 이유 제시, 향후 3년 동안의 약정액(commitment) 제시

## 다. 원조조화

## 8. 원조사업의 공동 업무처리 또는 공동 절차 사용

- 조건이 가능한 경우, 프로젝트 지원의 형태를 프로그램 기반의 지원으로 전환
- 일정 분야에서의 공여국 사업수 감소를 위한 개도국 정부 및 타 공여국간 명확한 노동분업(division of labour) 합의

## 9. 공동 현지사무소와 공동 국가 분석 활동 장려

- 타 공여국을 포함하는, 그리고 합의된 개도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 마련
- 공여국간 문서와 분석공유
- 개도국 주도 분석 지원 향상 (예 : 정책분석 역량강화, 국가전략과 분야별 계획을 위한 개도국의 연구 및 분석지원 등)

---

11) 영국은 예산지원(budget support)을 '빈곤감소 예산지원(poverty reduction budget support, PRBS)'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Lim, 2011).

## 라. 결과중심원조

### 10. 결과중심 프레임워크

- 개도국 정부 및 타 공여국과 함께 국가 및 분야별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 개발

## 마. 상호책임성

### 11. 상호책임성

- 개도국 정부 및 타 공여국과 함께 원조효과성 향상에 대한 발전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상호책임성 메커니즘 개발
- 개도국 정부가 원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지원

### 12. 조건제시(conditionality)<sup>12)</sup>

- DFID의 새로운 조건제시 정책 이행
- DFID 원조지원 조건을 DFID 웹사이트에 공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은 현지사무소에서의 파리선언 이행 행동방안을 각 지표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파리선언 지표 8인 원조의 비구속화 부분은 이 행동방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영국은 세 차례의 파리선언 이행 모니터링 결과에서 원조 비구속화 비율을 모두 100%로 보고하고 있다 (OECD, 2007, 2008, 2011).

영국정부의 파리선언 이행 행동방안의 또 다른 특이한 사항은 ‘원조제공 조건정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정부는 국제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1980년대 및 1990년대의 조건제시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조건제시정책을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개정된 원조조건이 부정적이지 않다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원조제공에 있어서 개도국에게 합당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개도국의 재정관리 및 책무성을 강화하고 개도국 정부의 불안정한 행정제도 또는 부패로 인해 원조재원이 잘못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제사회는 파리선언에서 원조제공에 대한 조건제시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Lim, 2011).

영국의 파리선언 이행 행동방안은 위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방안과 함께, 그동안의 영국 원조

12) 원조에 대한 조건제시 정책(conditionality)의 자세한 내용은 ‘임소진 (2012).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협력효과성으로. 국제개발협력 2012년 2호. 한국국제협력단.’ 참고



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었던 교훈과, 이를 바탕으로 향후 영국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영국은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EU와 북유럽연합체(Nordic+)의 원조에 대한 기본 원칙을 존중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취약국에 대한 차별적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 3.3. 호주

호주정부는 파리선언 또는 원조효과성을 위한 별도의 이행방안은 수립하지 않았으나, ‘원조백서’와 ‘정부예산안’, 그리고 ‘원조프로그램의 성과평가전략(Performance Assessment Strategy for the aid program)’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조효과성 공약과 OECD DAC의 동료검토(Peer Review)에 의거하여 파리선언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AusAID, 2006). 즉, 호주는 파리선언 이행을 위해 행동방안을 설립하여 따르는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평가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원조백서에서 제시된 정책에서 이행단계를 거쳐 평가까지, 그리고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다시 반영하는 과정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호주정부는 특히 파리선언 이행에 대한 자체평가를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 실시하였다. 2007년에 실시한 파리선언 이행 자체평가에서 발견된 개선사항은 이후 파리선언 이행과정에 적용하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7년 평가에서 강점으로 분석된 부분은 이후 파리선언 이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강화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2010년 평가에서는 2007년 평가 이후 개선사항으로 제안된 항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AusAID, 2010). 호주정부는 2010년 자체평가에서 파리선언 이행과정에서 발견된 호주 원조의 문제점들을 향후 호주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내용이 2011년 부산총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참고로 호주의 파리선언 이행 전략 및 평가는 AusAID 내 개발효과성 사무소(Office of Development Effectiveness)가 담당하고 있다.

## 4. 한국의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시사점

본 연구는 향후 한국의 부산파트너십 이행방안 마련을 위하여, 스웨덴, 영국, 호주의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방안과 전략을 알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본 연구는 세 국가 모두 국가 원조 정책 및 정부예산안과 파리선언을 연계하여 행동방안 및 전략을 수립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파리선언 뿐 아니라 공여국별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우선사항으로 고려되고 있는 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취약국에 대한 고려와 개도국별 상

황에 맞는 차별화 된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나아가 세 국가 모두 평가를 통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여 각 국가 ODA의 발전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았을때, 스웨덴은 행동방안 수립에 있어서 국가 원조정책 뿐 아니라 이행기관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을 수립하여, 그를 중심으로 세부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부 이행방안을 살펴보면,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절차, 담당부서, 기한을 명확히 제시하여,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06년 이행방안), 이 단계 이후에는 7가지 우선목표를 중심으로 파리선언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의 경우,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5가지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현지사무소, 국제단계, 지역차원, DFID 조직 차원의 행동방안을 각각 파리선언의 5대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영국 역시 각 세부 항목별 이행 담당부서를 제시하였다. 호주는 특별한 행동방안은 없으나, 다양한 평가제도를 연계하여 파리선언 이행과정에서 발견된 제약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호주 역시 파리선언 이행에 있어서 전체적인 총괄(control tower) 역할을 하는 부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타 공여국의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방안 및 전략을 보았을때, 한국 ODA는 앞으로 부산파트너십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원조백서와 같은 국가원조정책 문서를 발간하여, 부산파트너십 이행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외교부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한국 ODA 기본계획과 연간시행계획에 부산파트너십의 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 원조 이행기관 모두 ODA 기본계획에 나와있는 방향을 토대로 부산파트너십 이행 행동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무상·유상 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EximBank)은 부산 파트너십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 외 부산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행동방안 개발에 있어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사항은 부산파트너십의 이행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부분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분석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별 완료기간과 담당부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행동방안에 따른 이행여부 평가와 이행과정에서 발견되는 제약점에 대한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도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2010년 DAC 회원국이 된 후, 2011년 부산총회를 개최하였고, 2012년 부산 글로벌파트너십 집행위원회 회원국이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은 원조효과성 및 개발협력효과성에 대한 기여와 발전방안을 위한 준비와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부산파트너십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시기적절한 행동방안 및 전략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외문헌

AusAID (2006). FAQ on Paris Declaration and Aid Effectiveness. October 2006.

\_\_\_\_\_. (2010). Australia Update for the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Declaration. Phase 2.

DFID (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06). DFID's Medium Term Action Plan on Aid Effectiveness: Our Response to the Paris Declaration. Donor Policy and Partnerships Team, Policy Division.

Lim, S. (2011). Aid Effectivenes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Declaration: a Comparative Study of Sweden, the United Kingdom, South Korea and China in Tanzania. Doctoral thesis. Manchester, University of Manchester.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7). 2006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Overview of the Results. Paris, OECD.

\_\_\_\_\_. (2008). 2008 Survey on Monitoring the Paris Declaration: Making Aid More Effective by 2010. Paris, OECD.

\_\_\_\_\_. (2011). Aid Effectiveness 2005-10: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Paris Declaration. Paris, OECD.

\_\_\_\_\_. (2012a). Proposal for the Mandate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DCD/DAC/EFF(2012)7. Paris, OECD.

\_\_\_\_\_. (2012b). Proposed Indicators, Targets and Process for Global Monitoring of the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Proposal by the Post-Busan Interim Group. DCD/DAC/EFF(2012)8/REV1. Paris, OECD.

\_\_\_\_\_. (2012c). Steering Committee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Chair's Proposal. DCD/DAC/EFF(2012)6. Paris, OECD.

\_\_\_\_\_. (2012d). Proposed Scope and Approach to the Global Monitoring of Busan Partnership Commitments and Actions. Consultation Paper. Post-Busan Interim Group. DCD/DAC/EFF(2012)5. Paris, OECD.

Sida (2006). Increased Aid Effectiveness: Sida Action Plan 2006-2008. POM Working Paper. Department for Policy and Methodology. Stockholm, Sida.

\_\_\_\_\_. (2009). Action Plan on Aid Effectiveness 2009-2011. Stockholm, Sida.